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쳐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처> 편집지 ● 본보국: 우 110-170 서울시 중구로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943)470-3116 ● TEL: (0943)470-3155

법공양 페이지

야 합니다. 절대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잘 했든 못했든 어떠한 게 닦쳐도 오직 서슴없이 거기에 흡수시키라는 애김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형상이 없는 공한 자리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믿고 맡긴다면 그대로 무효가 돼 버려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되고 모습으로,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한 군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거든지 그 한군데에 다시 놓는 작업만 한다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조상이 일 꼬이게 한다하니...

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돈을 닦는 사람이려나서 말을 걸어 왔습니다. 제가 집안의 운을 쥐고 있고 조상이 저에게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은 조상이 제 주위를 맴고 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거라고 하더군요. 1년 전에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컸습니다.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해서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약간의 제사비를 주고 제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업보가 많아서 그러니 업보만큼 돈을 바치면 빨리 그 업보를 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도를 벗어났고 틀린 얘기라는 것은 알지만 쉽게 마음에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 하지 못하는 조상을 애기하며 일이 꼬인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여러분은 자기가 속해있는 그 생활 속에서 자신의 근본을 믿는 작업을 하면서 한구멍으로 들고 나는 행을 합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그런 행이 없으면 자기 성품을 발견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이 아니면 자기 성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서 나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라고 하는데 어찌 한 사람한테 미루고 바깥에서 부처님을 찾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자신들한테 '내가 저지른 거는 내가 거꾸러.' 하고 혼내하셨는지?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저지르고 과거로부터 행하여 왔고 지금도 행하고 가는 데 여러분이 해야 하지 어찌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발부리를 채어서 피가 나도 '아아' 하고 자기가 그 순간 자동적으로 자기 발을 어루만진단 말입니다.

14면으로 계속

촛불재는 물리 터지게 하는 방편

촛불재를 하는 의미는

문 스님, 저는 한마음선원에 다니지는 않지만 선원에서 하는 모든 의식과 행사가 부처님의 근본 뜻에 어긋나지 않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원에서는 정월 초하루가 되면 모든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촛불재를 정성스럽게 하는데 촛불재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자 큰 스님께 질문 올립니다.

답 선원에서는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새해맞이 촛불재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래 안다면 아마 전자에 선지식들이 그렇게 방편을 일러주시고 많은 설법을 하지 않았을 거고... 또 부처라는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모르니까 염불도 있어야 했고, 그 옛날 법을 다 갖추어야 했고, 지금 현대법과 예전 법이 틀이 아니게 우리는 항상 따라야 하는 것이 예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모르면서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 촛불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보이는 물질의 촛불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촛불재를 하는 것은 방편으로써, 마음이 없으면 그 촛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래 마음이 밝아 있지 않다면 밝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밝힌다는 생각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래 마음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촛불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다 가살이 돼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한 가정에 내 자식, 내 부모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살이 된 겁니다. 전체가 그렇게 가살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도 내 마음이 밝혀지면은 그 마음도 밝혀진다는 얘깁니다. 전기 가살을 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듯이, 그것은 자연히 되어있는 마음의 가살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식이나 부모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 하나 켜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을 밝히게 할 뿐 아니라 현재의 내 마음도, 양면을 다 밝히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요건도 있죠. 이 세상에 나올 때 재가 다 혼자 나오죠? 갈 때도 혼자

자 가구요. 대신 가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밝히는 것도 껌껌한 두뇌를 밝히는 것도 바로 재가 각자 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식구들이 오지 못할 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한마음이니가 대신 하지 뭐, 혼자 대표로 하면 되지' 이러지는 마세요. 촛불재라는 것은 유위법이나 무위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껌껌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에 의해서, 밝은 지혜 물리를 내기 위해서, 항상 뿌리가 깊게 밝아 있으니 스스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들고 켜고 하는 것이 방편이라고 하지만은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못한다거나 열심히 하는데도 안된다거나 또는 본인 자신도 어찌지 못하고 말씀을 피우는 것도 다 업적으로 인한 거니까 본인이 마음의 촛불을 켜 들고서 간절히 관하게끔 만들어 주고, 또 본인이 부득이 못하게 되면 부모라도 대신 해주어서 그 간절한 마음의 전달로 지혜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겁니다. 각자 내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해놓지



그림 · 최주현

생활속에서 자신의 근본을 믿고 한구멍으로 들고나는 행을 하면 자기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었습니까? 내가 해야만 내가 한 것만 받들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재라는 것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없애고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촛불처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명을 밝히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항상 마음의 뿌리가 밝아지도록 발원하는 방편이자 진실한 의식인 것입니다.

원인모를 괴로움에 시달려

문 우연치 않게 큰스님 법문을 접하게 되어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중인 재가자입니다. 처음에 스님 말씀을 따르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15년 전부터 저는 원인모를 괴로움에 시달려 왔습니다. 자꾸 저 아닌 제가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알고 있지만 자꾸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생활하면서도 그럴 때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런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빙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 끝에 최면치로도 받아 봤지만 아예 최면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내 속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놓는 작업을 하지만 좋아졌다가도 또 재자라고 괴로운 생활의 반복만 계속됩니다. 심지어는 저는 마음이란 것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지금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스님의 말씀을 위로삼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주인공자리가 굳이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 자신의 빙의의 마음을 찾아내서 다스릴 수 있는지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들

일체가 주인공 자리서 나오니 모든걸 그 자리에 되돌려 놓아 썩 벗어나 자유인 될 수 있어요

문 오랫동안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죠. 체가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아서, 즉 말하자면 상대에서 마음을 내는 것도 영이고, 내 마음 가진 것도 영이요, 영에다 영을 넣으면 영이 되나, 수많은 영을 영에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애는 방법이예요.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마음은 체가 없어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 에너지는 뱃속이 간다는 느낌이 들든지 간에 본래의 근본은 못 벗어나고,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체는 절대로 벗어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간혹 어떤 사람은 성모마리아가 나타났는데 그녀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는.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의식 속에서, 자기가 마리아

를 너무 좋아했으면 마리아 모습으로 보이고, 환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빨려들어서는 안되죠. 즉 말하자면 부처님을 너무 형상에서만 좋아했으니까 그렇고, 관세음보살을 형상에서만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렇고, 부모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그런 것이죠 형상이 없어요. 형상은 바람과 같고 든 구름과 같고 공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한 이유로 나오는 환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소. 너무 딱딱해도 안되고 너무 물렁해도 안되니까 좀 더 중도롭게 중심을 잡고, 그런 게 보인다해도 '아 나를 공부시키려고 속에서 화해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다 되돌아간다면 다시금 일어나지 않고 본심의 뜻이 전달이 되죠. 그런 데 속지 말아

법공양페이지는 동행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칭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수행원

300명 수용가능 현대식 수행법당, 요사채, 샤워실, 공양실의 쾌적한 시설과 소리산 16만평의 108도굴 수행처, 행선코스 8km(산림욕, 산책로, 등산로) 약수터(출세봉, 저울암벽의 특공생수), 비암굴(둔화바람, 천바람) 나오는 신비로운 수행처) 나한굴 기도처가 있는 수행전문 청정도량임.

◎매주 철야 명행정진 : 토요일 저녁 8시~일요일 아침 8시
 ※수행비용: 참선, 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정진, 108배, 도인체조건강법, 행선, 좌선, 소리산등반, 수행테크닉교육 점검, 숙원기도 7회

참선초기 수행자의 염불 수식관 비법 수행(처음공개) 경강 염불 감사 명상 비법공개!

◎출가예정자, 행자 수행교육 체험 : (7일, 15일, 30일, 49일)

◎업장소별, 소원성취, 병고자 특별기도수행
 ※하루종일 쉬지않고 호흡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행으로 불평불만, 원망심, 탐진치 3독심을 녹이며 소원을 이루는 심심나는 기도법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화병, 병병, 감기물살등을 수행으로 쉽게 극복하는 비법전수

◎신행단체나 성지순례시 방문하시면 언제나 절대 숨치지 않고 할터까지 않으며 단전할, 응전할, 노궁할이 열리고 자동으로 숫자 해아러지는 절삼매의 비법 테크닉을 배울 수 있습니다.

※49제, 천도재, 물고기 방생 등의 불공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대명스키장, 산음자연휴양림 5km)

전화 (0338)771-7745 / (011)9088-7745

2000년도 연수·연구과정 신입생 모집

본 불전국역연구원은 국역사 양성과 불전(佛典)의 정리 및 연구 번역과 출간에 주력하여 불교중흥의 토대를 이룰 목적으로 '93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역경에 뜻을 두고 있거나 불교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하는 비구·비구니 및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2000학년도 연구과정 및 연수과정 봄 학기 개설강좌

개설강좌 교과 담당교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화엄학특강 (화엄경현답) 해남스님	갈리어 기초 백도수 교수	외전연구 (논어) 권영대 교수	산스크리트문법 기초 김명 교수	속조단경 종범스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00년. 1. 25.(화) ~ 2. 25.(금)
 나. 강의시작 : 2000년 3월 6일(월)
 다. 강의시간 : 오후7시~9시
 라. 접수처 : 불전국역연구원 교학부
 마. 문의 : TEL. 02)929-9991
 FAX. 02)928-4302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불전국역연구원

광운불교대학 제 4기 신입생 및 경전반 모집 안내

신입생 모집안내

- 학과목 안내
 기초교리(불교학 개론)
 불교역사
 (인도·중국·한국불교사)
 천수경·반야심경·부처님 일대기
 사찰과 불자의 예절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청운 큰스님
- 자격
 · 광운불교대학(기초교과과정)을 수료했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 ※ 포교사자격증 수여

경전반 모집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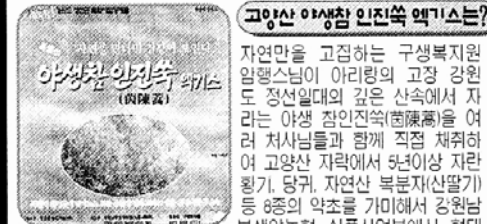
- 학과목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강좌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청운 큰스님
- 자격
 · 광운불교대학(기초교과과정)을 수료했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 ※ 포교사자격증 수여

문의 사무국 (02)389-8966 FAX (02)387-8529

광운정사 (광운포교원)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이리랑의 고향 高養山 야생참 인진숙 엑기스



자연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일명스님이 이리랑의 고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숙(蔘)을 여러 차례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0이상 자연 율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山藥) 등 8종의 약초를 기미해서 강원원부생약농림 식품사업부에서 현대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판매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숙과는 다릅니다.

공급가격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릉우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신적순 300명에게는 배에 관정이다. 골다공증, 골절 등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행과 불세를 뿌리고 재배한 토종종자에서 100%를 드리겠습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인자, 임원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부를 윤백하게 해줍니다.
3. 피를 맑게 해 줍니다.
4. 손, 발이 차거나 저린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5.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6. 당뇨병
7. 신경통
8.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9. 류마티스나 관절염
10. 심장이나 방광에도 매우 좋습니다.
11. 간에 나쁜사람
12.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13. 골다공증을 저하시켜 줍니다.
14. 중풍에도 좋습니다.
15. 고혈압, 저혈압
16.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7. 장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18. 눈을 맑게 해 줍니다.
19. 불면증, 향달
20. 담즙 분비를 많이 해 줍니다.
21. 신오에게도 탁월한 효과

주 문 저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www.yasenginjinsook.co.kr